

통일부 정례브리핑

2023.8.7.(월) 10:30, 구병삼 대변인(통일부)

먼저, 금주 주요 일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통일부 장관은 8월 8일 화요일 오전 10시 국무회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통일부 차관은 8월 10일 목요일 오전 9시 차관회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오늘 모두에서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현안에 대해 질문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 ·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군수공장을 잇달아 시찰했는데요. 8월 을지프리덤실드훈련에 대응한 현지 지도다, 또는 러시아와의 무기 거래를 염두에 둔 일정이다 등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는데 통일부 평가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군수공장을 시찰했다는 보도가 어제 있었습니다. 북한의 의도는 국방 분야의 성과를 과시하고 한미연합훈련에도 대응하면서 무기 수출까지 여러 가지 다목적 포석을 둔 것으로 일단 의도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북한이 주민들의 민생을 희생하면서 핵과 ICBM 개발은 물론이고 재래식무기 개발도 지속하고 있는 데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질문> 김정은 위원장, 군수공장 현지 지도 보도 관련해서 군수공장 관련 일정은 대부분 비공개로 했던 거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공개한 게 처음인지 궁금하고요.

추가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썼던 표현 중에서 '국방경제사업'이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이런 표현을 쓴 것도 처음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군수공장 현지 지도는 작년 1월 28일에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군사시설 방문으로는 핵무기 병기화 사업을 현지 지도하면서 핵무기연구소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올해 3월이고요. 특별히 이례적인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요.

북한이 사용했던 '북한경제사업'이라는 표현은 매우 이례적인 표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기 수출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UN 안보리결의를 위반하겠다고 스스로 공언한 것으로 개탄스럽게 생각합니다.

<질문> 추가적으로 박정천이 해임된 거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다시 등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혹시 통일부에서는 박정천의 중요 직책 복귀 가능성이나 아니면 러시아와의 무기 세일즈에서 향후 어떤 역할을 할 거로 예상하시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박정천은 올해 1월에 당 8기 6차 전원회의에서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과 당 비서, 정치국 상무위원직에서 소환되었고 다시

첫 번째 식별이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분석이 가능하겠지만 현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앞으로 어떤 역할 하게 될지 그건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국방경제'라는 표현을 가지고 무기 수출을 염두에 뒀다는 판단은 그 어휘를 근거로 할, 표현을 근거로 하시는 것인지 한번 확인차 여쭙보겠고요.

또 하나, 만약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무기 수출을 한다면 안보리결의 위반이 분명한데 북한이 그런 비판이나 그런 감시가 오히려 강화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수출 가능성을, 대러 수출 가능성을 시사하는 이유로 그 표현을 썼다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미국이나 한국에 대한 어떤 경고성이라든지 또는 어떤 메시지가 있다고 보시는 것인지 그 메시지가 무엇이라고 보시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북한이 '북한경제사업'이라는 표현을, 이례적인 표현을 썼기 때문에 그 표현이 '무기 수출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전제를 달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북한이 어떤 의미를, 이 의미를 가지고 이 용어를 썼는지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일단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무기 수출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스스로 UN 안보리결의를 위반하겠다고 공언한 것이기 때문에 매우 개탄스럽게 생각합니다.

<질문> 그래서 제가 질문이 하나 더 있었는데 만약에 무기 수출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그게 어떤 한국이나 미국을 향해서 어떤 메시지를 주는 것인지 그것... 그렇게 추측하시는 건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답변> 그 부분까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분석하기에는 현재 상황만

으로는 판단이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끝>